

전남소방 심·산간 안전사각 해소 온힘

지역 특성 반영 맞춤형 서비스 농어촌 119지역대 구급차 10대 골목길 소화기함 200여개 추가

전남도소방본부가 도시·산간지역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군등 소방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전남은 전체 면적의 56%가 산림이며, 전국 섬의 65%인 2165개의 섬이 있다. 도시·산간지역은 특성상 화재 구급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소방본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방안전서비스를 실시중이다. 도시지역이나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 화재 취약지에 비상소화장치 499개소와 골목길 소화기함 484개를 정비하고 올해 200여 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올해 여수 남면과 완도 청산, 진도 조도, 신안 하의, 4곳을 포함한 농어촌지역 119지역대 등에 구급차 10대를 추가 배치해 최근 5년간 유지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 33%대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최근 3년간 5개 도서지역에 배치된 구급대는 1969회 출동으로 1280명을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또 섬지역 응급환자의 경우 헬기를 적극 활용해 이송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68회 운항해 151명을 이송했다. 올해 10월에는 해무, 강풍 등 기상 제한이 따르는 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형급 헬기를 도입한다.

도시지역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나르미션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9개 사군 70개 유인도서에 민간선박 128척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558건의 이송실적을 보였다. 나르미션은 섬 주민들의 배를 활용해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유류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선박이다. 지역 주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2005년부터 전남소방에서 최초로 추진했다.

전남지역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도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위한 견고한 발판 마련 작업도 순항 중이다. 지난 3월 신안군과 진도군 소방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전남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전남소방본부장흥 이전으로 소방지휘부가 도내 모든 권역에 1시간 이내 대응체계를 갖췄다.

마재운 본부장은 "신청사 개청으로 더 안전한 전남을 위한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약속한 만큼 전남 어디에서도 도민 모두가 균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수협, 우두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 고흥군 우두마을(어촌계장 김용)이 지난 5일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흥재)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수산자원 보호와 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자원봉사자가 이끈다

자원봉사센터와 지원업무 협약 두달간 하루 18명, 936명 지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최근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모집 및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수목비엔날레 홍보 및 자원봉사자 모집·선발·훈련 ▲수목비엔날레 자원봉사 지원 체계 구축 및 활성화 ▲수목비엔날레 자원봉사 연구 및 정보교류 등을 함께 하게 된다.

전남도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선발하고 사무국은 배치해 자원봉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수목비엔날레 기간 하루 18명, 연인원 총 936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관람객 안내는 물론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천영 사무국장은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성공적 행사를 위해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필수적"이라며 "두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비엔날레가 코로



나에 지친 국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힐링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2회째인 2021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오채찬란 모노크롬-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별

쳐진다. 목포와 진도 주 전시관 이외에도 범도민 수목 축제의 장 조성을 위해 광양·여수·나주·광주 특별전시관과 여수·구례 등 동부권을 비롯한 9개 사·군에서 동시에 열린다.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17곳 전국 최다

하반기 다향울림 등 5곳 신규 선정

2021년 하반기 행안부형 마을기업 공모에서 전 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개소가 선정됐다. 신규 마을기업에 우수한 사업 기반과 경영 역량을 갖춘 보성 다향울림 영농조합법인 등 5곳이 선정됐다.

마을기업 가치실현 및 운영 성과가 뛰어난 기업에 주어지는 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에 해남 햇살 영농조합법인, 순천 전남유동형마을기업 등 12곳

이 뽑혔다.

선정된 마을기업에는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을 단계별로 나눠 지원한다. 단계별로 신규는 5000만원, 재지정은 3000만원, 고도화는 2000만 원을 보조한다.

고도화 단계까지 선정되면 최대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우 수마을기업'에 순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이

선정, 3000만원의 사업개발비를 확보했다.

마을기업이란 같은 생활권(읍면)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회원의 7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하고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전남의 마을기업은 총 286곳으로 지난 2018년(219곳)보다 30.6%가 늘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정책과장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이익 실현에 앞장서는 마을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웃사랑 실천 우수 사례 9월 30일까지 공모

전남도는 자원봉사자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공유하고 이웃사랑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우수 체험사례를 공모한다. 수기 공모는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남에 있는 학교나 직장 구성원으로 전남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했던 도민이면 응모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문화체육, 환경개선, 교통질서, 재난재해 지원 등 모든 영역의 봉사활동이다.

봉사활동을 통해 느꼈던 감동과 보람 등 체험사례를 산문 형식으로 자유롭게 써 A4 용지 3매 안팎으로 작성해 우편이나 이메일(moonsmile82@

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통해 입상작 10편을 선정한다.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자는 '2021 전라남도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전라남도지사상'과 '전남교육감상'을 받는다. 수상자의 수기는 자원봉사 체험수기 발행 책자인 '남도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에 수록한다. 김재성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졌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의 훈훈한 마음은 전남도민의 마음을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300명 '전남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 출범

지난 9일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신속 복구에 앞장설 '전라남도 재난현장 긴급자원봉사단'이 300명의 정에 봉사자로 구성해 출범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문금주 행정부지사과 김성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문옥, 김경자, 김문수 도의원, 17개 봉사단체와 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자원봉사단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긴급자원봉사단에는 ▲국제라이온스클럽(355-B2)지구 ▲국제모타리클럽 3610지구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지부 ▲전남 자율방범연합회 ▲세마을지도자 전남협의회 ▲남도사랑봉사단 ▲블루재난봉사단 ▲현대삼호중공업 ▲한국도로공사광주전남본부 ▲대한조선 ▲전력거래소 ▲해병대전우회 전남연합회 ▲전국모범안전연합회 전남지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남도회 등이 참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농기원, 어르신 '약선보양 호을죽' 출시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지역 이류식 전문 업체 ㈜정담과 손잡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약선보양 호을죽' (사진)을 최근 출시했다. 전남농기원은 지난 2018년부터 ㈜정담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받아 고령친화식품 개발을 추진해왔다. '약선보양 호을죽'이라는 제품명으로 한우 한방죽, 흑미 더덕 마죽 등 8종을 지난 1일 도내 업체를 통해 시중에 선보였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우석 연구사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볼 때 다양한 고령친화식품 개발이 필요한 시기"라며 "도내 유기 재배농가 및 업체와 함



게 농특산 자원의 기능성을 고령친화식품에 접목해 고령자 삶의 질 향상과 농산자원 부가치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